



더 많은 리포트 보기

반도체

3분기 D램 가격 예상치 상회할 전망

3분기 서버용 D램 가격 +20% 인상, 모바일 수요부진 충분히 상쇄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올 3분기 서버용 D램 고정가격 +20% 인상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는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AI 서버 투자로 서버용 D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선단 공정의 30%를 HBM 생산에 할당하면서 서버용 D램 공급 제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8/21, TrendForce). 따라서 서버용 D램 가격 인상과 범용 D램 대비 가격이 +5배 이상 높은 HBM 출하 비중 확대 등이 모바일 수요부진을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어 3분기 D램 평균판매가격은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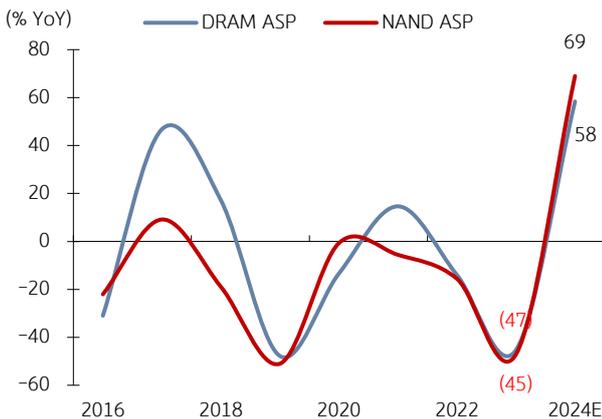
하반기 서버용 DDR5 가격 상승세 지속, 최대 화두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

— 올 하반기 서버용 DDR5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① 전력 소모가 큰 AI 서버가 급격히 확대되며 데이터센터의 전력 비용 감소와 전력기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충분한 전력 확보가 가장 중요해졌고, ② 2017~2018년 대규모 서버 투자로 설치됐던 일반 서버에서 전력 효율이 높은 신규 서버로의 교체 수요가 올 들어 6~7년 만에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D램 평균판매가격은 HBM3E 판매 비중 확대와 서버용 DDR5 출하 증가 등으로 +25~30%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HBM, DDR5 고부가 D램 공급부족 불가피, 향후 가격 하락 가능성 희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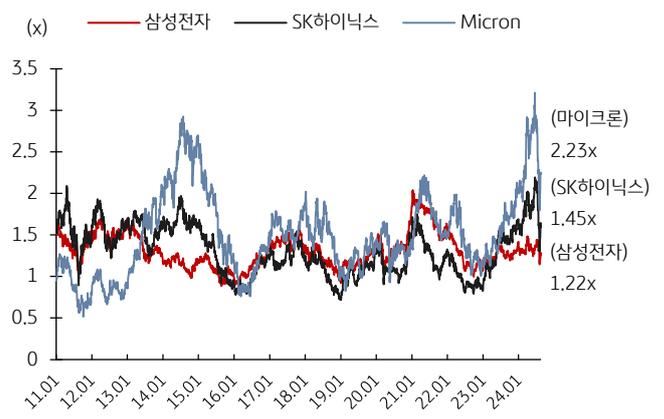
— 2025년 D램 시장은 HBM, DDR5 등 고부가 D램 수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대비 +50% 성장이 예상되어 공급부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D램 신규 증설이 HBM, DDR5 중심의 투자 확대로만 이뤄지며 범용 D램의 생산능력 증가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재를 우려한 중국 데이터센터 업체들이 서버용 D램 구매 규모를 최근 +2배 이상 확대하며 공격적인 재고 축적에 나서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D램 업체들은 신규 증설과 선단 공정의 대부분을 HBM에 집중하고 있어 당분간 서버용 D램의 공급부족은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3분기 D램 평균판매가격 (ASP)은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수개 분기 동안 D램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그림 2>.

그림 1. 2024년 메모리 ASP: DRAM +58% NAND +69%



자료: 삼성전자, KB증권

그림 2.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PBR 비교



자료: Bloomberg,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삼성전자]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SK하이닉스]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